지난달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예멘과 2008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후반 박주영이 김승용의 패스를 받아 양동현의 첫 득점을 어시스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긴 이겼는데…

예멘에 1대0 답답한 첫승…박주영·양동현 합작

베이징올림픽 축구 예선전

한국 축구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향해 힘겹게 첫 걸음을 내디뎠다.

핌 베어벡 감독이 이끄는 22세 이하(U-22) 올림픽대표팀은 지난달 28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아시아지역 2차 예선 F조 1차전에서 후반 23분 양동현의 결승골로 중동의 복병 예멘을 1-0으로 제압했다.

첫 승을 신고했지만 시종 답답하고 성에 차지않는 졸전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3위 예멘은 전력이 베일에 가려진 '도깨비팀'으로 불렸지만 분명히 한 수 아래였다. 게다가 경기 전날에야 입국해 훈련은 커녕 시차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채 치른 경기였다.

약체에 고전하는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재연됐고 험난한 올림픽 예선일정을 앞두고 '이대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웠다. 베어벡호는 상대가 뻔히 밀집수비로 나올 것을 알고도 제대로 된 대처법을 찾지 못했다.

박주영과 양동현을 투톱에 놓고 김승용과 이승현을 좌우 날개로 배치한 올림픽팀은 백지훈, 오장은이 중원에서 공수 흐름을 조율하며 조심스레 경기를 풀어나갔다.

전반엔 1만1천여 팬들이 한숨만 푹푹 쉬어댔다. 경기시작 33분만에 이승현이 벼락같은 슈팅으로 크로스바를 맞힌 게 유일하게 볼 만한 장면이었다.

지독하게 터지지 않던 득점의 물꼬를 튼 주역은 박주영과 양동현이었다.

전반 몇 차례 헤딩 시도와 문전 침투가 번번이 수비진에 걸린 박주영은 후반 18분 미드필드 왼쪽에서 볼을 낚아채자 김승용과 2대1 월 패스를 시도했다.

박주영은 김승용이 볼을 되차주자 몇 발짝 더 치고 들어간 뒤 직접 슈팅을 노려볼 찬스에서 무인지경에 있던 양동현에게 다시 볼을 밀어줬다. 양동현은 문전으로 뛰어들며 가볍게 예멘의 그물을 갈랐다.

한국은 이후 공격수 이근호와 서동현을 투입해 추가 득점을 노렸지만 결정력이 떨어졌다.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박주영은 후반 40분 예멘 선수를 배를 내밀어 밀어 넘어뜨리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저질러 주심으로부터 '레드카드'를 받고 곧바로 퇴장당했다.

박주영은 일단 다음 예선 경기에 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시아축구연맹(AFC)의 추가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대표팀은 14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원정 경기로 예선 2차전을 치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동국 또 골대 불운

FA컵 웨스트 브로마치전…승부차기서 실축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거 4호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잉글랜드 무대 두 번째 출전에서 또 골대 불운에 울었다.

이동국은 후반 막판 투입돼 슈팅 네 개를 때렸지만 승부차기에선 골대를 맞췄다.

미들즈브러는 지난달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더 호손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FA(축구협회)컵 5라운드(16강)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챔피언십리그)과 재경기에서 전·후반과 연장전을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이겨 8강에 진출했다.

이동국은 그라운드에 들어간 뒤 3분 만에 오른발 중거리슛을 때렸고, 웨스트 브로미치 골키퍼 딘 킬리가 가까스로 쳐냈다.

연장 혈투 끝에 승부를 가리지 못한 뒤 들어간 승부차기에서 이동국은 아쉬운 실축을 하고 말았다.

선축을 한 미들즈브러의 두 번째 키커로 나선 이동국은 승부차기 1-1에서 힘차게 공을 찼지만 왼쪽 골포스트 밑둥을 맞혔다.

미들즈브러는 4-4에서 여섯 번째 키커 조지 보아텡이 킥을 성공시키고 웨스트 브로미치의 마지막 키커 셰릴 맥도널드의 킥이 빗나가 힘겹게 FA컵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FA컵 8강에 오른 이동국은 오는 11일 오전 2시30분 미들즈브러의 홈구장 리버사이드 스타디움에서 박지성의 맨유와 맞대결을 벌인다.

한편 이날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과 설기현(28·레딩FC)이 열흘 만에 맞대결을 벌였다. 맨유는 레딩을 힘겹게 꺾고 잉글랜드 FA(축구협회)컵 8강에 진출했다.

박지성과 설기현은 지난달 18일 설 맞대결에 이어 각각 선발로 나와 설기현이 후반 23분 글렌 리틀과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에서 68분 간 맞부딪혔다.

지난달 21일 챔피언스리그 릴전과 같은달 24일 정규리그 풀럼전에 연속 결장한 박지성은 공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달 28일 영국 호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FA(축구협회)컵 미들즈브러와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 재경기에서 뛰고 있는 이동국.

김병현 4일 등판

'핵잠수함'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사진)이 본격적인 실전 투구에 나선다. 콜로라도 구단 홈페이지는 지난달 28일 김병현이 3월 4일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LA 에인절스와 시범경기에 선발 경쟁자인 조시 포그와 함께 등판한다고 밝혔다. 김병현은 지난 해 선발투수로 자리를 잡아 올해 250만달러에 재계약했지만 이번 시범경기에서 다시 강한 인상을 심어줘야 선발 마운드에 확고히 뿌리내릴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스포츠 중계

1일(목)

▲06/07 NBA 〈워싱턴 : 마이애미〉 (09 : 00·SBS스포츠)

▲2007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삼성생명 : 신한은행〉 (SBS스포츠·13 : 50)

▲2007 MBC 탁구 왕중왕전 (14 : 00·MBC ESPN)

▲06/07 V리그 올스타전(14 : 10·KBS1)

▲06/07 프로농구 올스타전(14 : 15·SBS)